토요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5면)

송파구의회 채승우·박지효 의원 영풍초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장방문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 · 가락2동 · 문정1동)과 박지효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 · 가락2동 · 문정1동)은 11월 17일(화) 영풍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의 방수 및 누수 문제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방수 및 누수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교시설의 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

박지효 의원은 "학교시설의 누수와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승우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예산과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